

제 8 장 클럽하우스의 기능

Functions of the House

주소(내 집)를 갖는다는 것

Dee Ruas, Having an Address: The Importance of
Clubhouse Housing

실제적인 주거 만들기

Nancy Emory, Making Housing a Reality

주소(내집)를 갖는다는 것 : 클럽하우스 주거 프로그램의 중요성

Dee Ruas

나는 37세의 남자이고, 대학을 졸업했으며, 현재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발병했지만 그때는 심하지 않아서 대학을 입학해서 다닐 수는 있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일도 했는데 어느 날 운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그만두게 되었다. 이 사고 때문에 나는 우울해졌고 죽고 싶어졌다.

나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우리 집은 매우 끔찍했다. 사고 이후 치료를 다 받고 나서 나는 다시 학교도 가고 일도 했다. 그러나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병은 심해졌다. 그래서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학교를 다니고 졸업하기 위해 노력했다. 대학 졸업식에는 아버지 말고는 가족 중에서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고 그 일로 가족과의 관계가 더 나빠졌다. 결국 이 건으로 인해서 병세가 악화되고 가출까지 하게 되었다.

나는 내 차에서 살았는데, 살 집을 구하려고 일 자리를 찾아다녔었다. 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입원을 한 적은 없었지만, 대신 작은 아파트에 있는 '쉼터' 라는 곳에서 잠시 살아 보기도 했었다. 아마 어느 누구라도 거기서 오래 살기는 힘들 것이다. 나도 거기 오래있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때로는 일을 하고, 때로는 낮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낮병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때로는 먹을 수 있는 곳에서 밥을 먹고, 때로는 어머니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잠깐 낮잠을 자고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차에서 모든 생활을 했다. 밤이 되면, 차를 해변가에 있는 다리 근처에 세워두고 거기서 잠을 잤다. 가끔은 다리 끝까지 걸어가서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생각해 보기도 했고 그러느라 밤을 새기도 했다. 나는 6개월 동안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마침내 정신건강센터에서 소개해 줘서 임시주거시설을 알게 되었다. 그곳은 병원 건물 한쪽에 위치하고 있었고 입소자들의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했었다. 그리고 정해진 기간만큼 입소하고 나서는 퇴소해야 하는 규칙이 있었고, 소위 '상태'에 따라서 방을 배정했다. 처음 두 주는 지옥 같았다. 나는 일을 하고 나서 거기-쉼터-에 갔는데, 그곳에 가면, 나는 갇혀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늘 자유롭고 싶었는데, 내 몸 하나 뉘일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곳에 있는 동안 나는 병세가 정말 심각해져서 결국 처음으로 입원하게 되었다. 나는 입원과 주거 시설 입소를 반복했다. 내가 거기에 있는 동안 우리 가족은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부모님은 그곳의 문턱도 넘어서려고 하지 않으셨다. 좀 나아지는 것도 있었다. 알다시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는 안전한 주거에 대한 욕구가 있다. 집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죽을 것이다. 사람에게 따라서 죽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본 저널은 대화샘솟는집에서
번역하였습니다.

만 말이다. 그러나 집이라,,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 어떤 것을 진정한 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거의 1년 정도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했고,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했다. 나는 일자리 잃어버렸고 안정적이지도 않았다. 내 머리위에 지붕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을 내 집이라고 부를 수는 없었다.

얼마 후 내 주치의가 ‘브리지 하우스 Bridge House’ 라는 ‘클럽하우스’ 를 소개해 줬는데, 그곳에는 주거 프로그램이 있어서 내가 만약 클럽하우스의 회원이 되면 그곳에서 지원해주는 아파트에서 살 수도 있다고 했다. 처음에 ‘클럽하우스’ 라는 말을 듣고 나는 ‘대체 이게 뭐지? 종교단체인가? 뭐면 어떠랴, 내가 집만 얻을 수 있다면, 그게 뭐든지 상관없지’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클럽하우스를 방문했는데, 그곳에 들어서자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인사하고, 자기를 소개하고, 앉으라고 말해주고, 아침 회의에 참석해 보라고 권했다. 나는 마치 친한 친구인 양 인사하고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조금은 당황스러웠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 걸까?’ 어쨌거나 그 사람들은 나를 그들의 일과 속에 참여하도록 해주었고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는, 만약 가능하다면 그들과 계속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클럽하우스라는 곳이 이상한 곳이 아니고, 사람들이 친절했기 때문에 다음날 다시 가기로 마음먹었다. 클럽하우스에서 활동한지 며칠이 지나고 나서, 나는 클럽하우스가 좋아졌고 회원으로 활동하고 싶어졌다. 그리고 얼마 후 주거 프로그램 담당자와 만났다. 그는 클럽하우스에서 운영하는 주거 프로그램에 입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했고 그래서 주거에 입주하기로 했다.

내가 가진 어려움은, 내가 때때로 거칠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브리지 하우스에서는 내게 기회를 주었다. 그리고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클럽하우스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도와주었다. 위기 때 극복할 수 있게 해주었고 힘들 때 전화를 할 수도 있었고, 주말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나는 처음으로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진짜 아파트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지만 내가 적응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었다. 클럽하우스에서는 내가 돈을 벌 수 있도록 임시취업 자리를 알아봐 주었다.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이고, 내 룸메이트인 주거 담당 직원은 나와 대화를 나누고 내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6개월 후에 나는 밀린 방세를 다 지불했고 내가 번 돈으로 주거 생활비를 내는, 진정한 주거 입주자가 되었다.

브리지 하우스는 내가 건강이 나빠졌을 때도 지원해 주었다. 그리고 주거라는 환경에 살게 해주어서, 길거리나 차가 아닌 곳에서 숙식을 할 수 있게 해주었고, 룸메이트와 함께 살면서 사람을 사귀는 법을 알게 해주었고, 내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 알게 해주었다. 나는 브리지 하우스의 아파트에서 4년간 살았다.

4년이 지난 후 나는 나 혼자서도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힘든 점이 몇

가지 남아있기는 했지만, 브리지하우스에서 조금만 도와준다면 나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그 후 처음 구한 아파트에서 주거를 지원하는 직원의 도움을 받으면서 4년간 혼자서 살았다. 브리지하우스에서는 푸드뱅크를 통해서 식료품도 지원해 주었다.

마침내 나는 안정된 상태에서 살 수 있다고 느껴졌고, 감정적으로도 내 자신이 좋아졌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몇 번의 임시취업을 할 수 있었고 독립취업도 했다. 나는 증세가 악화되고 호전되는 상황이 반복되어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브리지하우스 주거 프로그램과, 직원과 회원들은 내가 어디에 있건, 심지어 입원을 하더라도 집세를 내주는 등으로 나를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고 다시 차로 돌아가지도 않았다.

이후에 나는 또 이사를 해서 다른 집에서 2년을 살았고 브리지하우스도 이사했다. 그리고 마침내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했다. 그곳에서 지금까지 5년째 살고 있다. 처음 2년간은 브리지하우스 주거 프로그램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졸업(?)’을 했고 지금은 혼자서도 잘 살고 있다. 나는 임시취업을 하고 있고, 일하지 않는 날은 클럽하우스에서 일하고 있으며,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나는 훌쩍 성장했고 지난 6년 동안 나는 내 자신을 괴롭히지도 않고 있다. 나는 클럽하우스 국제 세미나에 3번이나 참석해서 발표도 했고, 클럽하우스 3주 훈련에도 참여했고, 8년 동안 입원도 안했다.

치료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가족과도 같은 브리지하우스에서 나를 도와주고 안전한 내 집을 갖게 된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나 또는 내 스스로 내 삶을 돌아보면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슨 양식을 작성하건, 제일 앞에는 이름과 주소를 쓰는 란이 있다. 그만큼 주소는 당신이 누구인가를 표현할 때 중요한 부분이다.

이제 말을 마치려한다. 나는 내 집과 주소를 갖게 된 것, 그리고 실패할 기회와 또 다시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무척 감사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우리 모두가 머리를 났을 수 있는 편안한 집을 갖기를 바래본다.

Dee Ruse는 미국 코네티컷주, 브리지 하우스 Bridge House 회원이다.

이 글은 2002년 11월 동부지역 컨퍼런스에서 발표하였다.

실제적인 주거 만들기

Nacy Emory, Gateway House,

어제 톨은 자신의 아들 릴레이에 대해 말을 했다. 릴레이는 몇 년간의 무의미한 치료를 한 후 호주에서 클럽하우스를 알게 되었다. 그는 클럽하우스에서 위안을 찾았고 보람을 갖게 되었다. 릴레이는 퇴원 후 의사소통 없이 클럽하우스를 나와서 하숙집(boarding home)으로 거주를 옮겼다. 거기서 그는 사망하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려고 한다.

엄마로서 톨이 릴레이에 대해 말하는 강도에 나는 압도하게 되었다. 만약 그녀가 여기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우리는 변화를 만들기 위한 동기부여가 되었을 것이다.

나는 이 세미나에 오기 전에 회원들을 위한 주거문제는 오직 미국에만 있다고 생각을 하였다. 하지만 이곳에서 핀란드에서 온 여성 회원에게 들었는데 그녀도 자신의 아파트를 유지하기 위해 청소하고 쇼핑하는 것이 힘들고 여전히 아파트가 정리정돈이 되지 않고 정신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영국에서 온 회원에게도 자신의 주거 상태가 형편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 호주에서 온 회원에게서는 주소가 없을 경우 직업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유타에서 온 회원에게서는 노숙자가 되면 자신의 삶이 얼마나 혼란스러워지는지에 대해서도 들었다. 워싱턴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는 한 여성은 옷을 강에서 세탁을 하고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방법도 모른다고 한다. 그들 모두 클럽하우스의 지원을 통해서 자신의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자신의 삶이 안정되기를 원한다고 했다.

이제 주제를 바꾸어서, 내가 고백을 할 것이 있는데 “나는 리얼리티 쇼를 보고 있다” 이 중에 대다수는 이 쇼를 못 보았을 것이다. 미국 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더 더욱 못 보았을 것이다. 이 리얼리티 쇼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나는 리얼리티라는 단어에 대해 먼저 정의하고 싶다. 리얼리티의 의미는 “실제, 성공이나 영구적인 상태”이다. 리얼리티의 의미는 “환상의 상태가 아니다”. 다음의 단어를 기억해야 한다: 영구적인, 성공적인, 환상이 아닌.

나는 인터넷사전에서 TV쇼에 의해 부사로 수정되어진 “리얼리티”라는 단어의 새로운 정의를 찾아보았다. 최근 리얼리티 쇼에서 다른 배경을 가진 성인들이 오랫동안 함께 생활하도록 하는 것을 보았다. 이 엔터테인먼트는 시청자들에게 이들이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직면하게 되는 스트레스를 보여 주었다.

3주훈련생들이 훈련을 위해 게스트하우스에 오면 이런 말을 한다. 리얼리티쇼 “Real World” 같아요. “Real World”는 MTV에서 1992년에 만든 첫 번째 리얼리티쇼이다. 어떤 훈련생들은 자신이 “생존자” 같다고 하였다. 훈련생들은 클럽하우스에 방문하게 되면 “견습생”이 된다. TV에서 이 리얼리티 쇼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기 15년 전인 1970년대부터 3주

훈련생들은 게스트하우스에서 함께 생활을 하였다. 클럽하우스 공동체는 언제나 이 성공적인 아이디어에 선구자가 될 것이다. 나는 자주 만약 훈련생들이 훈련을 위해 파운틴하우스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다가 자신의 클럽하우스로 돌아가고 나서 텔레비전 네트워크로 리얼리티 쇼를 시작하면 어떨까를 생각한다.

3주훈련 때문에 게스트하우스를 사용한 적인 있는 사람은 일어나보세요!

3주훈련 때 훈련생과 룸메이트가 되었던 사람 일어나보세요!

이번 세미나에서 호텔에서 방을 함께 쓰는 사람도 일어나보세요!

자! 보세요. 이 룸에 있는 사람 모두입니다.

게스트하우스- 여기 호텔방에서나-에서 며칠만 있으면 스트레스가 생기지 않나요? 당신의 룸메이트는 코를 골지 않나요? 당신은 잠을 자길 원하는데 룸메이트가 밤새 TV를 켜고 있지는 않나요?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스트레스 받지는 않나요?

조금만 지나면 우리는 집에서 평화와 고요를 갈망하게 됩니다. 자신이 원할 때 좋아하는 TV쇼도 끄고 싶고 자신만의 냉장고를 갖고, 사적인 욕실을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생활이 리얼리티 쇼라고 생각해봐라? 그 것이 영구적인 생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봐라 -모든 것이 당신에게 제공되어졌는가? 많은 회원들이 처한 상황은 참가자들이 TV쇼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리얼리티쇼가 아니다. 훈련이 끝났을 때 자신의 개인적인 공간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들은 주거시설이나 공동체 시설로 가야 한다.

최근 십년간 클럽하우스 공동체는 회원들에게 취업의 기회 제공이라는 놀랄만한 업적을 가졌다. 우리는 10가지의 변명을 모두 극복하였다. 우리는 경제적인 상태, 높은 실업률, 조합, 타이틀의 부족, 인센티브, 직원의 부족 등을 극복하였다. 우리는 회원들에게 직업을 제공하기 위해 훌륭한 회의도 한다.

클럽하우스 인증을 할 때 회원이 희망하는 실제적인 직업의 기회를 갖고 일을 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응답을 한다. 회원이 클럽하우스에 와서 “나는 일을 하고 싶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예스”라고 말을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교육 기회에 대한 과정을 만들어 가고 있다. 교육에 대한 항목은 스탠다드의 “클럽하우스의 기능” 에서 옮겨져서 하나의 카테고리로 강조하고 있다. 지금 회원이 클럽하우스에 와서 자신이 학교에 다니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한다면 우리는 “예스”라고 하고, 우리는 당신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약 회원이 클럽하우스 낮 동안 의미 있는 일을 원한다면 우리는 “예스” 라고 말한다. 만약 회원이 친구를 원하거나 사회적인 생활을 원한다면 , 우리는 “예스” 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회원이 클럽하우스에 와서 “살 곳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예스” 라고 쉽게 말을 하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가? 만약 회원이 “나 지금 살고 있

는 곳이 불만족스럽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회원을 다른 기관으로 연계할 것인가?

회원이 강압적이고 구속적인 환경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절망적이고 슬픔 속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회원을 도울 수 있을까?

우리는 회원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우리는 회원이 풀타임 직업을 갖고 자신의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회원이 밤에 집으로 돌아가서 안정감을 못 갖고 불행하고 존중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회원의 삶을 위한 지원을 다 끝냈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회원의 학교생활과 학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다. 하지만 회원들은 학교과제를 하기 위해서 학교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할 수도 있지 않는가? 회원의 집에서 스터디 그룹을 할 수도 있지 않는가? 회원이 현재 살고 있는 곳에 소등시간이 있어 스터디 그룹에서 빨리 귀가해야 하는 일을 생기지 않을까? 또 회원이 학교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을 때 살고 있는 집이 그룹홈이거나 여전히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면 당황스럽지 않을까?

좋은 부모를 갖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지지적인 가족을 갖고 있다면 행운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 성인들은 혼자서 자신만의 삶을 살길 원한다. 가족과의 관계는 부자연스러운 것이고 부모와 같이 살고 있다면 성인에게는 자존감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성인은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가족과 함께 살게 된다.

“웰니스” 요즘에 중요한 주제이다. 건강과 웰니스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수면이다. 회원의 수면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회원에게 좋은 수면의 기회를 제공하는가?

나는 1966년에 만들어진 클럽하우스 문서를 좋아하는데 이 초기 문서는 클럽하우스의 기본적인 제공이 스트레스라고 말하고 있다: 취업, 의미 있는 일, 교육, 사회적 기회, 독립, 아파트 생활. 어떻게 우리는 클럽하우스의 책임이라는 중요한 기회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런 기회를 희망하는 회원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영구적인 집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집중해야 한다. 우리는 회원이 자신의 집을 갖도록 도우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회원의 욕구를 지원하고 본부나 회원의 사례관리자에게 의존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변명을 그만해야 한다. “집세가 비싸서”, “돈이 없어서”, “주거는 어려워”, “이것은 너무 힘들어”, “이웃들이 원하지 않아” .

스탠다드에 한 카테고리에 대문자로 주거를 넣어야 한다. 우리는 안정적이고 사회적 기준이 맞으며 감당할 수 있고 독립적이며 영구적인 주거를 회원을 위해 개발해야 한다.

게이스웨이 GateWay House 에 유럽에서 훈련생이 왔었다. 훈련일정으로 우리 아파트 프로그램을 방문하였다. 통역에 어려움으로 그녀는 나는 이곳의 “Homing Program” 에 인상을 받았다” 라고 하였다. 우리는 모두 웃고 나서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72개의 집을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주거(Housing)” 가 아니라 “집(Home)” 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

**본 저널은 대화샘솟는집에서
번역하였습니다.**

는 72개의 침상을 갖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많은 “침상” 을 갖고 있느냐로 말을 하면 안 된다. “침상” 은 병원인 것이다. 집은 지역사회에 있는 것이다.

많은 클럽하우스에서는 회원들에게 독립적인 아파트 형태의 좋은 주거를 제공하고 있다. 클럽하우스는 회원이 살고 있는 지역이 집세가 너무 비싸거나, 시골에 있거나 도시 외곽에 있으면 도와야 한다.

어떤 클럽하우스는 대부분의 회원들이 독립적이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잘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의 일을 한명의 회원에게 제공한다. 꼭 해야 한다면 회원에게 독립적인 생활의 기회를 가정(Home)의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회원들이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해야 한다는 걱정을 하지 않도록 영구적인 독립생활을 확립해야 한다. 우리는 이 기회를 클럽하우스의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성공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실천할 때 좋은 집은 더 이상 환상이 아니다. 이것이 진짜 리얼리티가 되는 것이다.

Nacy Emory는 미국 게이트웨이 하우스 Gateway House 직원이다.

이글은 2007년 미국 위스콘신 밀워키에서 열린 제 14회 국제 클럽하우스 세미나에서 발표하였다.

본 저널은 대화샘솟는집에서
번역하였습니다.